

11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

성경말씀: 요3:16-21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함, 니고데모,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어머니 배 속에서 물과 함께 나오는 첫째 출생,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위에서 타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 14-15절 설명, 이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 >

요한복음 3장 위대한 장, 16절: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나는 한 번도 설교한 적 없다. 오늘 하려고 한다. 영어로 가 보시면 앞에 For가 붙어 있다. '왜냐하면' 이유, 하나님, 세상, 이처럼, 독생자를 주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 영존하는 생명, 모두가 중요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생명은 생명에서만 난다. 그러면 첫 사람 아담도 누군가에게서 생명을 받아야만 존재 가능, 창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창조물(창조 세상)을 만든 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출3:14)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 생명의 근원: 하나님, 다시 태어나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의 출처 하나님 인간의 의무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롬1:21). 우리의 주인

세상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여러 용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철학, 시스템, 마귀 체제(요1:10, 7:70; 요일2:15-17) 즉 마귀의 속박 밑에 갇혀 있는 온 세상 창조물 특히 모든 인간과 창조물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함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함,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심, 아이들을 낳는다. 속을 썩인다.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막2:17). 친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여 주는 책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말로만 사랑은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사랑하신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는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아들이 단 하나(요1:14),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인간들 죄에서 구속하려 함. 아버지가 동의하고 그 아들을 보내심, 베들레헴 마구간, 나사렛의 목수, 공생애 시작, 십자가 처형, 죽음, 부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 그냥 지옥 형벌에 버려두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느 정도인가? 고후5:21, 공의의 하나님,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음, 구약 시대 죄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함, 무한한 희생 예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몸에 다 받았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죄 제거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

17절을 보라. '주셨다'의 의미, 보내셨다.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 whosoever,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 색 전혀 상관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요1:9)

그를 믿는 자는

이것 역시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는 교리,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다시 태어나서 믿게 되는 것 아니다.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언제가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믿도록 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믿는다’(believe)는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요1:11-12), 환영하며 받아들임

무엇을 믿는가? 1. 내가 죄인임을 믿는다. 2. 형벌을 받아야만 함을 믿는다. 세상을 보라. 좋은 세상 공의로운 세상의 특징: 죄의 형벌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심, 3.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는다. 4. 나를 지은 분이 있음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고쳐 줄 수 있음을 믿는다, 5. 그래서 나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한다. 6, 그분의 말씀: 내 아들이 네 죄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만 신뢰해라.

히11:6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설계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 처분, 인간도 설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른 것, 여기서 벗어나면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을 폐기처분하는 날이 온다. 이 장소를 지옥, 불 호수, 여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곳(마25:).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산다.

18-21절 설명, 정죄

영존하는 생명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특징: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eternal life(15)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구하다. everlasting life(16)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레이건 대통령 퍼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들 위해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 소개, 2018년 9월 14일 워싱턴포스트지에 공개됨 자기 장인인 로얄 데이비스에게 보낸 전도 편지, 이 편지는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인 1982년 8월 7일 자기 장인 로얄이 숨을 거두기 12일 전 백악관 사무 노트지 네 쪽에 쓰인 것으로 레이건의 솔직함과 간절한 정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손 글씨 편지다.

친애하는 장인어른께, 장인은 의사, 믿으려 하지 않음

무례하다면 용서를 구합니다만, 사실 지난 번 전화 통화 이후로 계속 이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지금 많은 고뇌를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비밀로 했던 한 가지 개인적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던 첫 해의 상황은 지금 워싱턴에서 대통령으로 겪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산적한 문제들은 끝이 없었고 해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매우 시절 워너브라더스에서 고생했던 때도 위궤양을 앓지는 않았는데, 주지사가 되고 위궤양을 앓게 되니 저는 이것이 저의 연약함으로 보일까 부끄러웠습니다.

주치의인 존 샤프가 말록스를 처방해 줬지만 저는 항상 속이 불편하거나 아주 날카로운 위경련을 겪는 등 언제나 고통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이 고통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록스 약병을 제 책상과 가방, 그리고 집에 항상 챙겨 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 여느 때처럼 약병을 찾았는데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병이 필요 없어진 (고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날 밤에도 분명히 통상적인 고통 속에 잠이 들었는데 그 날 아침 궤양이 말끔히 고쳐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말록스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날 아침 제가 집무실에 도착하자 비서인 헬렌이 저에게 온 편지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으로 연 편지는 남부지역의 어떤 닷선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저를 위해 기도하러 매일

모이는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고 알려 줬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놀랍게도 또 다른 모르는 남성이 보낸 것이었는데, 이 분은 캘리포니아 주의 반대쪽 지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법무 팀의 직원이 무슨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집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매일 아침 좀 일찍 출근해서 모여 주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주 뒤에 낸시와 저는 LA로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제 주치의 존 샤프는 약간 혼란스러워 하며 저에게 “위궤양이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위궤양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그에게 제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마18:20) (중략) 참으로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일은 아마 의사이신 장인어른께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저는 그 사건보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더 큰 기적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역사상 최고의 날조자이자 사기꾼이겠지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면 그런 고통스런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냥 거짓말을 시인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자로서나 성직자로서 아무런 신임도 없는 30세 청년이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에 걸친 옷자락 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가 이동한 거리는 지름 160킬로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3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일반 범죄자와 다를 바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선생들과 과학자들과 황제들과 장군들과 제독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뒤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무한히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어르신과 장모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애의 끝으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직 삶의 일부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생명과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르신은 단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기신다고 하나님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사위 로니 드림.

유튜브 동영상: 레이건 대통령과 킹제임스 성경

20세기 가장 훌륭한 레이건 대통령의 말: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맡깁니다를 뜻한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했는가? 오늘 구원받기 바란다.